

사월 그리고 득도

수인당 손윤자

모시고 반갑습니다.

우리는 4월이 오면 대신사님에 대한 생각, 무극대도를 받으신 생각들을 하게 되고 어느 때는 감사함이 사무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죄스러움에 몸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알 수 없기도 하고 어느 때는 우리 후학들의 어리석음이 가슴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4월은 후천시대가 처음으로 열린 거룩한 달이요 우리 수운대신사께서 후천 천황씨가 되신 달이요 이 땅에 밝은 광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신사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천도교는 얼마나 좋은 일인을 씨앗으로 갖고 있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수운대신사님은 천도교의 제1세 교조이시며 1824년 10월 28일 경주 현곡면 가정리에서 태어나, 오랜 세월 구도생활을 하시다가 37세 1860년(庚申년) 4월 초5일 때에 한울님으로부터 무극대도를 받으시고 이듬해 1861년(辛酉년) 6월부터 포덕을 하시다가 41세 되신 해인 1864년(甲子년) 3월 10일에 대구장대에서 순도하셨습니다.

대신사님의 성은 최씨이며, 이름은 제우요, 자는 성목이요, 호는 수운입니다. 대신사님의 아버님은 근암 최옥 선생으로 문장과 도덕이 높아 경상도 일대에 사림의 사표가 되셨으며 어머니는 청주 한씨입니다.

대신사님은 어려서 어머니가 환원하시었고 17세 때에 아버님께서도 환원을 하십니다.

대신사님은 어릴 적부터 사물을 보는 눈이 남달리 총명하셨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께서 어린나이에 다 환원하는 슬픔을 당하시고는 인생의 무상함을 뼈저리게 느끼시고 21세 때부터 10여년을 주유천하를 하시면서 체제안민의 도를 얻고자 하였으나 정치의 부패와 사회제도의 모순을 더더욱 사무치게 느꼈을 뿐 아무소득이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권학가」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풍속 모르거든 내 곳 풍속 살펴보소. 이도역시 시운이라 무가내라 할 길 없네.” 그리하여 대신사께서는 31세(1854년)때에는 주유천하를 청산하시고 울산 유곡동 여시바윗골에 정착하시어 명상을 하시며 구도생활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러다가 32세 을묘년(1855년) 3월에 천서를 받게 되시는데 이를

우리는 **을묘천서**라고 합니다. 을묘년에 받은 천서라는 것입니다. 이 을묘천서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면 이렇습니다.

“대신사님이 봄날의 정취에 취해 사색에 잠겨 계시다가 잠시 눈을 붙인 사이에 어느 스님 한사람이 와서 어른이 ‘최씨’성을 가진 선생님이냐고 하여 그렇다고 하니 말하기를 ‘소승은 금강산 유점사에 기거하고 있는데 100일 기도를 드리던 중 탑전에 이 책이 놓여 있었기로 그 내용을 알 수 없어 이렇듯 그 소문을 쫓아 찾아왔으니 최선생님께서 알아봐 주시기를 청합니다.’ 하는지라 대신사께서 책을 받아보니 바로 해독이 어려워 ‘3일 후에 다시 오라’ 이르시고 살펴본즉 그 책의 내용을 알 수 있는지라 삼일 후에 그 스님이 다시 오매 내용을 알았다고 하니 이는 ‘한울이 선생께 내린 것이니 선생께서 간직하소서.’ 하여 돌아보니 스님은 간곳이 없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을묘천서는 따로 전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대신사께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전에는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하신데 반해, 그 후에는 ‘49일’ 날을 정해놓고 치성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을묘천서의 내용은 49일 치성을 드리라는 내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해인 1856년(丙辰年) 5월에 내원암에 들어가 49일 기도를 하는 중 47일 만에 숙부의 환원하는 것을 느끼시고 하산해보니 과연 숙부께서 환원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다음해인 1857년(丁巳年)에 천성산 적멸굴(자연적인 큰바위 굴로 물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신비스러운 곳. 이곳은 원효대사께서도 기도를 한 곳이라고도 함)에서 49일기도를 마치기는 하였으나 여러 가지의 이적들은 있었지만 대신사께서 기원하는 창생을 건질 도를 구하지 못하신 채로, 또한 경영하시던 철점이 잘 안되어 가산을 정리하시고 1859년(己未年)10월에 가족을 모시고 용담으로 돌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용담으로 들어오시면서 대신사님의 심정을 「용담가」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미용담 찾아오니 흐르나니 물소리요 높으나니 산이로세. 좌우산천 둘러 보니 산수는 의구하고 초목은 함정하니 불효한 이내마음 그 아니 슬플소냐. 오작은 날아들어 조롱을 하는듯고 송백은 울울하여 청절을 지켜내니 불효한 이내마음 비감회심 절로난다”

대신사께서는 이렇게 용담으로 돌아오셔서서는 굳은 결심을 하시는데 이때에 원래 이름인 제선을 제우로, 도연이던 자를 성목으로 고치시고 “도기장존 사불입 세간중인 부동귀(道氣長存 邪不入 世間衆人 不同歸)” 라는 입춘시를 써

붙이시고 구도생활을 계속 하셨습니다.

다음해인 37세 되시던 1860년(庚申년) 4월 초5일에 한울님으로부터 만고 없는 무극대도를 받으시니 이것이 학으로는 동학이요 도는 천도입니다. 훗날 이에 근거하여 의암성사께서 ‘천도교’라 명명하였으니 지금의 천도교가 된 것입니다.

대신사께서는 「교훈가」에서 무극대도를 받은 것이 꿈 일런가 잠 일런가 하시면서 이것이 우리집안의 남은 경사인가 순환지리의 회복인가. 나 보다는 나은 사람, 높은 사람, 잘난 사람, 다 많은데 어찌 내가 받았는지 잠자다가 받았는가. 꿈을 꾸다가 받았는가 알 수가 없어 묵묵부답 생각을 하니 자와 호 그리고 이름을 어리석은 백성을 구하고야 말겠다는 ‘제우’로 바꾸고 굳은 결심을 한 것이 분명하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때부터 사모님과도 희희낙담하시고 입도하는 세상 사람들은 군자가 되고 지상신선이 되고 선풍도골로 변화하니 좋을시고, 좋을시고 이내신명 좋을시고 라고 노래하시고 금을 준다 해도 은을 준다 해도 바꾸지 않을지니 좋을시고, 좋을시고 하시면서 그 기쁨을 노래하셨습니다.

대신사님께서서는 무극대도를 받으시고 1년여 동안 닦고 단련하면서 그 이치가 확실한가를 다시 확인을 하셨다는 것을 수덕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덕 할 마음은 두지 않고 지극히 치성할 일만 생각하였노라,”

그렇게 하여 다음해 1861년(辛酉년) 6월에서야 포덕을 시작하시는데 소식을 듣고 도에 들고자 찾아오는 모습을 「교훈가」에서 “통개중문 하여두고 오는 사람 가르치니 불승감당 되었더라.”고 노래하셨고 「수덕문」에서는 “문을 열고 손님을 맞으니 그 수효가 그럴 듯 하며 자리를 펴고 법을 베푸니 그 재미가 그럴듯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천도교의 처음 시작은 대신사께서 도를 받으시고 좋을시고, 좋을시고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 시점부터입니다. 대문을 활짝 열고 도를 전하시니 도를 받고자 용담으로 풍운같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모습이 우리 천도교의 원인인 것입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여 사장사장 서로 도를 전하고 받는 것이 천도교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행복의 씨, 기쁨의 씨, 웃음의 씨, 긍정의 씨, 무한의 씨, 생기의 씨, 활기의 씨, 정성의 씨, 공경의 씨, 믿음의 씨, 감사의 씨를 다 지녔습니다. 천도교인으로써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언제나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사께서 이 4월에 주신 좋은 씨를 잘 가꾸고 키워서 이 땅에 아름다운 천도의 꽃을 피웠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